

## ■ 인물 탐방 - 감만사회복지관 윤성희 벨라멧다 관장

# 개관 20주년 기쁨 “주민과 함께”



윤성희 벨라멧다 관장이 복지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동고동락해 온 감만 사회 복지관(이하 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1992년 8월, 남구 양지골로 171 감만동 언덕배기에 ‘헬복? 여기!’라는 모토로 사회복지법인 ‘성바오로 애덕원’의 위탁경영으로 문을 열었다.

복지관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살가운 벗,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스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복지관 윤성희 벨라멧다 관장수녀는 “외로운 이웃과 함께한 시간들이었다. 어렵고 힘들어 여쭙어도 무거웠지만 가슴 뚫듯한 일도 많았다”고 회고하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한 복지관을 뒤를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윤 관장은 또 “지난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수립하여 하나씩 이루어 나가겠다”며 개관 20주년을 맞는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대지 485㎡ 연면적 900.4㎡ 지하1층 지상3층, 하루 최대 이용인원이 400명에 달하는 복지관은 포화상태다. 하루 120명이 이용하는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노인대학, 주부대학,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 육아용품대여점 웰컴 베이비, 하나공방, 공부방 등 좁은 공간을 프

## 92년 설립 소외계층 행복만들기 앞장

### 1일 400명 이용 열린 복지관으로 성장

지관장은 “개관 이래 20년 동안 누적인원 1,844명의 자원 봉사자와 846명 후원자들의 사랑과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바오로 애덕원’의 위탁경영으로 첫 출발한 복지관은 현재 ‘로사리오 카리타스’의 위탁경영으로 바뀌었다.

개관 당시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던 건물은 지상 3층(가건물)으로 증축 되었으나 복지관의 규모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짐에 따라 복지관 확장 또는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두래 기자

## 공직은 서비스업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 오 록 도 친절 지기 토지관리과 오 언 석 씨



### 정확한 업무파악은 기본 민원인 배려 우선 행정

오언석(시설 7급·38)씨는 지난 2011년 2월 남구청에 발령 받아 지적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민 업무인 토지합병,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은 주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업무가 민원인에게는 어려운 법과 관련되어 있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린다. 또한 토지 때문에 법상 분쟁이 있는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기도 한다.

그는 이와 관련된 법령과 법 검토에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선임자에게도 배운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언석씨는 지적측량 차 자주 외근을 한다.

최정순 기자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에 관여하게 된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했던 민원인 안형욱씨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요즘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서 기쁜 하루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 민원인이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중 도시가스관을 통과하는 골목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찾았으나 찾기가 어려워 민원을 넣었다. 오언석씨는 서류를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2004년 6월 사하구청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주위 동료들도 그의 겸손함과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성실함을 칭찬한다. 민원인의 친절엽서에서 꼭스러워 하는 언석씨. “친절은 서비스다”, “민원인을 배려하고 말은 조심하자”라는 다짐을 순간순간에 잊지 않고 있다. 특히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눈빛에서 그의 공직생활의 면면을 엿보게 된다. 정확한 업무 파악과 민원인의 배려가 친절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로그램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사업 등 복지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장소의 협소함을 탓하지 않고 작지만 큰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

또 단발성과 일회성, 편중된 교육에 머물지 않고 아동과 부모교육을 통한 화목한 가정,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통합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자녀에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도록 공격하는 마음을 담아 치료와 음식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부임 2년째인 윤 관장은 “나눔과 대화의 공간, 열린 복지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지관으로 주민의 삶에 스며들고 싶다. 그것이 우리 복지관이 나아갈 지향점”이라고 밝히고 해맑은 웃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합시다!”

복지관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로 9월 15일 기념식과 기념미사, 책자발간,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바자회를 개최

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9월 8일 오전으로 취소되었던 사랑의 걷기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개관 20주년 기념책자 발간사에서 윤 복

봉사자와 846명 후원자들의 사랑과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바오로 애덕원’의 위탁경영으로 첫 출발한 복지관은 현재 ‘로사리오 카리타스’의 위탁경영으로 바뀌었다.

개관 당시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던 건물은 지상 3층(가건물)으로 증축 되었으나 복지관의 규모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짐에 따라 복지관 확장 또는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두래 기자



개그맨 윤형빈·김영민씨가 남구 지역 모범 어린이들을 자신의 소극장으로 초대, 무료 관람토록 했다.

## ■ 화제의 인물 - 개그맨 윤형빈·김영민 씨

# 모범 어린이·학부모 초청 공연

개그콘서트가 낳은 스타 윤형빈과 김영민이 남구지역 모범 어린이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그맨 윤형빈과 김영민은 지난 16일 오후 2차에 걸쳐 남구지역 모범어린이와 가족 5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연3동 윤형빈소극장으로 초대해 무료 공연을 펼쳤다.

형빈씨와 영민씨는 이날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개그쇼와 밴드공연 등을 펼치며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편 공연을 마치고 어린이들과 일일이 기념촬영하며 사랑을 전했다.

공연을 바라본 김민석군은 “평소 TV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인기 개그맨을

눈 앞에서 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공연에 초대해준 두 형님 개그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의 자격과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형빈씨와 영민씨는 지난해 말 부산 최초로 남구에 개그전문관을 만들어 연일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러한 남구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무대였다.

김영민씨는 “평소 소극장을 찾아주는 지역민들에게 뭔가 뜻 깊은 일을 생각하던 끝에 남구청과 힘을 모아 어린이들을 초대하게 됐다”며 “동자와 독실, 그리고 해학이 가득한 윤형빈 소극장을 많이 찾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련 기자

## ■ 만갑습니다 - 19대 국회 개원 100일 맞은 서용교 국회의원의

# 침수피해 복구사업 예산 확보 주력

###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민 섬기고 낮은 자세 봉사



지난 6일 19대 국회 개원 100일을 맞은 서용교 국회의원은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씩 만들어 나가 보겠다”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남구의 각종 현안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그것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을 안아주고 보듬으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었던 읍호로의 침수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부족 예산 11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결산심사 시 직접 소방방재청장을 만나 침수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해 확답을 받아냈다. 현재 후속작업의 하나로 소방방재청과 부산시, 남구청이 예산확보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서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은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이 이뤄지기 힘든 지역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지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매몰비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재 이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로 회부돼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쟁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 외에도 교통체증문제와 공공시설 확충 등 자신이 공약을 내건 사업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남구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또 지역구 활동에도 열심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주말이면 지역을 찾아 가능한 많은 주민을 만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하수처리장 음악회가 무척 인성적이었던 그는 모든 주민이 웃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리겠다고.

서용교 의원은 “지역주민을 잘 섬기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기 위해 지역사무실을 개방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 ■ 우리구 이사람 - 박 중 규 용호4동 바르게살기위원장

# 진실·질서·화합 정신 심어오

박중규(45·사진) 용호4동바르게살기위원장은 진실·질서·화합의 정신을 되살리며 정직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29명의 위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과 경로잔치 개최, 환경정비 등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참 뜻을 알려 3회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4년 해군 상사로 예편하면서 위원회에 인연을 맺었다. 총무로서 굳은 일을 마다않고 위원회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4년 후 그는 남구 최연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때부터 박 위원장은 오랜 군생활로 다져진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위원회 활동을 주도했다. 먼저 회원 확충에 공을 들였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정신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

한 결과 회원수가 2배 3배로 늘어났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회원들과 함께 해마다 경로잔치를 열어 동네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가을이 오면 김장나누기 사업을 벌여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 확산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아내와 함께 자동차수리업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동해참가자미힛집

“부산최고의 물힛집”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56-20번지

**단체환영 ☎633-0151**

참가자미힛	특대: 100,000 / 대: 80,000
중: 60,000 / 소: 50,000	
모듬힛	특대: 100,000 / 대: 80,000
중: 60,000 / 소: 40,000	
점심특선	13,000
생우럭탕	10,000
뽕밥	8,000
가자미물힛	12,000

자연산

←문현대방향  
아이마트  
교촌치킨

→경성대방향  
롯데시가러  
구지영내과의원  
유민병원(3층)  
동해참가자미힛집  
문현아이마트(3층)

## 웃어요! 웃어봐요 (웃음·유머교실) 회원모집

**조상영 웃음연구소 웃음·유머 회원 모집**

- 개강: 2012년 10월 8일(월), 10월 15일(월)
- 매주(월) 오전반 11시~12시
- 매주(월) 저녁반 오후 7시~8시
- 선착순 50명 특별수강료(3개월: 9만원)

**부산예술회관 웃음·유머 회원 모집**

- 개강: 2012년 10월 9일(화), 10월 16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12시
- 장소: 부산예술회관(TBN 교통방송국 옆)
- 선착순 200명 특별수강료(2개월: 3만원)

**\* 웃음치료전문가 1급, 유머학박사도사 1급 자격증 취득가능 \***

- TBN 교통방송(94.9MHz) <웃어요! 웃어봐요> 생방송 출연, 2011년 웃음유머명가사 선정 -

**조상영 웃음연구소: 010-4567-2233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카페명: 한국웃음치료연구협회: http://cafe.daum.net/johahahoho)

Willis Hospital

## 윌리스 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고객을 왕자처럼 모십니다.

## 왕자익스프레스

언제 어디서든 119같은 이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업체를 선택해 보십시오.  
장거리 운반시에도 책임자가 도착까지 책임을 다해 모십니다.

**포장이사** **일반사무실이사**

**중량물 취급 숙련자 항시 대기!**

문의: H.P 010-9575-2245 Tel 611-3000, 633-1212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와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육아 보조금 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낯선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10:30~11:50  
오후 06:40~08:0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